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6월 14일(금)
(윤력 5월 9일)
Пятница
14 июня 2024 г.
№ 23 (1209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을 맞아 사할린 주정부 청사에서 여권 수여식이 있었다.

(사할린주정부 제공)

존경하는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

올해 6월 세 번째 일요일인 6월 16일은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날입니다.

이 직업 기념일을 맞아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고결하고, 자애로운 사람만이 의료인이 되어 환자들을 돕는 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에는 진정한 희생과 실력과 끊임없는 배움과 실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에 잘 대처하시며 세심함과 배려심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마을들에도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갖춘 외래 진료소와 조산소가 개소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지방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의사들은 연방 보건기관에서 온 의료진들의 지원 속에 더욱 진보된 치료방법을 익히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혁은 주민들의 건강과 때론 생명을 보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장,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응급 구조와 환자를 향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의료계 종사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러시아의 날 기념

6월 12(수) 러시아 날을 기념한 가운데 사할린주에서는 러시아 연방 모든 지역들에서처럼 이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공원 앞마당에서는 유치원생들에서부터 대학생들이 12미터의 러시아 연방 국기를 들고 플래시몹을 펼쳤다. 이날 비가 와서 일부 야외프로그램은 취소되었지만 도시 문화기관들에서는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프로그램이 펼쳐졌고 주 향토박물관 같은 경우 많은 민족 단체들의 민속 공연이 열렸다.

이날 전통적으로 사할린 주정부 청사에서는 여권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을 맞아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14개 각 지자체에서 학업, 창의력, 스포츠 및 학교 생활에서 큰 성공을 거둔 28명의 학생들에게 여권을 수여했다. 14세의 러시아 시민에게 여권을 수여하는 행사는 매년 1년에 두 번(6월 12일 러시아의 날, 12월 12일 러시아 연방 제헌절) 개최된다. 이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젊은 시민을 격려하고, 시민사회의 가치를 소개하기 위해 진행된다.

러시아의 날을 맞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축하인사를 보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

러분!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명절로 기념했습니다.

이날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다민족 국가로서의 무궁한 창조적 에너지를 실현한 날입니다.

그간 러시아는 적잖은 시련들을 겪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애국심 덕분에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들은 조국의 땅을 지켜내며, 보호하고, 전례 없는 노동의 업적과 과학적 발견을 성취했으며,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위대한 조국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현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강력하고, 자유로운 러시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조국의 역사를 소중하게 보전하며, 역사의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더욱 증진시켜갑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우리 공동의 사할린 집을 사랑으로 가꾸어 가며, 특수군사작전에 참전 장병들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국을 향한 사랑입니다.

동향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번영과 새로운 성취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성과를 기원합니다!라고 주지사가 축하를 전했다.

단신

사할린 주지사 선거 9월 8일

사할린 주지사 선거가 2024년 9월 8일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할린 주두마가 이 날짜를 승인했다. 사할린주 선거위원회는 2024년 9월 6일, 7일, 8일 총 3일에 걸쳐 사할린 주지사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현 주지사는 전임자인 올레그 코제마코가 연해주 주지사로 이임하자 2018년 9월 러시아 대통령의령으로 주지사 직무대행에 임명되었다. 1년 후 실시된 사할린 주지사 선거에서 리마렌코는 유권자로부터 56.15%(유권자 79,000명)의 지지를 받았고, 올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사할린 주지사 선거에 재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지난 10일(월) 있는 러시아 통합당 사할린지부 컨퍼런스에서 알레리 리마렌코를 주지사 후보로 지명하기로 했다.

러시아 내각, 사할린에 선도개발지역 확대에 대한 법령 승인

사할린의 선도개발구역인 '고르니 위즈 두흐'와 '유즈나야'가 새로운 하나의 '사할린' 선도개발구역으로 통합돼 그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이라고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전했다.

〈사할린〉통합 선도개발구역 조성에 대한 법령이 조인된 가운데 현재 공동관할구역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니와,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토마리, 티몴스 코에 시지구들이 포함된다.

이는 감독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지역 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투자 활동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내각이 전했다.

개발이 시작된 지역들에서는 1,634억 루블리 규모 58개의 투자기획 시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획들의 추진으로 5만3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선도개발지역을 위해 일련의 새로운 투자기획을 도입하여 추가로 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약 57억 루블리의 민간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이라고 주정부 측이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극동지역의 극장 축제 열려

6월 17일(월) 오후 7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사할린주정부 청사 앞광장에서 제5회 극동지역 극장축제가 개막된다. 이 축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되다가 올해는 처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다. 2주간 진행되는 축제동안 교육프로그램에 감독들의 특강, 사할린 섬과 배움을 위주로 하는 사진전시회가 있을 것이고 관중들은 심사단이 선정된 극동지역의 극장들이 연출한 10개의 연극, 러시아 우수 극장들의 연극(샤프트-페테르부르크 등)도 체호브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곧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마무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2023년 가을부터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전문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어 교사 양성(초급)' 과정을 시작해 올해 10명이 과정을 수료한다. 이들에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한글학교, 보충교육 기관 등에서 한국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사할린주에서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교육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고, 몇 년 전부터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이 과정의 공식적 실시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특히 지방에서 자격증이 있는 한국어 교사의 부족을 느껴 이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한국교육원과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사할린국립대의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에 들어왔다. 드디어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정승훈),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의 지도자들이 연합해 이 기획을 실시기로 했다. 이 3자 협약이 아니

사할린 국립대, '한국어 교사 양성'프로그램 실시

올 6월 말, 최종평가를 통과한 10명에게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예정



었으면 이 기획은 이루기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공동 노력으로 첫 번째 과정의 수료자 그룹이 구성되었는데 연수생들로는 사할린 지방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사할린국립대 졸업생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과 시간표에 따라 원격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풀타임으로 실시되었다. 교육과정에서 강의, 세미나 및 수업 실습, 활동교실, 자습 등 다양한 교육방식이 적용되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한국어수업을 맡은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코르네예와 인나, 최 인나와 조

카리나 교수들의 노고가 컸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예비 한국어 교사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반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인성교육 및 개발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한국어의 기본 수준을 가르치는 교육이론 및 실용 전문교육을 하고, 또한 현대적 교육방법론의 성과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일년 내내 연방 국가 표준에 따라 가장 기초학문, 교육학·심리학·교수법의 기초와 한국어 연구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연수생들은 한국어에 관한 네



권의 교과서를 익혔으며 이제 이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의 구조, 모든 텍스트, 대화 및 연습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어 문법의 모든 '신비'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교수인 인나 코르네예와 사할린주 한국어 교사협회 회장이 말하였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연수생들의 최종평가가 있었다. 한 자리에 모인 교수, 연수생 외에도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심사전문가로 나선 경험 많은 한국어 교사와 대학생들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성공의 열쇠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수단을 선택하는 기술이었다. 최종평가 때 한국어 전문가들의 조언과 특강은 소중했다. 각 연수생은 낯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30분씩 세 개의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수업은 명시된 개념을 반영하고, 연수생들이 연수기간 동안 배운 지식, 과학적 입장, 교육적 신념 및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

여주어야 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최종평가 참가자 모두가 모여 수업의 진행과정, 오류를 분석하고, 결과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생들에게 있어서 이런 최종평가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한지 수업에도 참가하고, 매일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요한 것은 교사, 연수생, 동료, 심사위원들 간의 창의적인 단합이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아서 한국어 교사로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양성(초급)'프로그램의 1회 연수생들은 6월 말에 졸업한다고 전했다. 곧 우글레고르스크와 오히에서,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도 새로운 한국어 수업이 열릴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2024년 여름에 새로운 연수 지원자를 모집한다. 주최 측은 여러 세대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섬 지역 곳곳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이 생겨나도록 할 계획이다.

(본사 기자)

이 모 저 모

홈스크 지역, 〈사할린 아르헛 페스트〉 사할린주 국가역사 영상기록물 축제 진행

6월 7일(금) 홈스크 중앙구역 니콜라예브 도서관에서 제3회 〈사할린 아르헛 페스트〉사할린 역사 영상기록물 축제(아카이브 축제)가 열렸다고 홈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이 축제의 일환으로 2가지 행사가 열린 가운데 첫째 방문객들은 전쟁과 해방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관람, 둘째 쿠릴열도 연구를 주제로 한 영상을 관람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 문화재단의 이사인 세르게이 포노마료프는 러시아 지리학회 구성원으로 자신이 탐험에 참가한 것과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쿠릴열도 해방자들을 기려 쿠릴산맥의 지리적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중요한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치체린 해군 함대 장교들의 명성 높은 가문의 역사를 소개했다.

В Холмске прошел островной фестиваль архивных кинодокументов «SakhАрхивFest»

07 июня в Холмске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 Ю.И. Николаева прошел III Сахали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архивных кинодокументов «SakhАрхивFest».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лись два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первой встрече посетители собрались для просмотра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ов, посвященных воинам-освободителям. Вторая встреча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изучению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ы Сергей Пономарев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ем участии в экспедициях в составе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 важной работе по имянаречению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в честь освободителей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познакомили с историей династии офицеро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Чичериных.

사할린의 학생들, 모스크바의 〈러시아〉 전시-포럼 방문

6월 5일 사할린의 학생대표단이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 견학차 모스크바로 향했다. 학생들은 국제 전시-포럼 행사를 방문하고 관광을 즐겼다고 사할린주 보충교육 및 훈육 지원센터가 전했다.

학생대표단은 2층 버스를 타고 모스크바의 명소들을 구경

하며 '모스크바리움'을 방문했다. 교사로서 학생대표단과 함께 동행한 율리야 스테블란스카야는 "정말 훌륭한 행사였고, 학생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볼쇼이 극장과 국방부도 방문하며, 붉은광장에서 산책하고, 유명한 레닌도서관을 견학했다. '모스크바리움'은 학생들에게 가장 빛나는 정서를 안겨주었다. 학생들을 위한 이번 견학은 사할린 지역 보충교육 및 훈육 지원센터가 조성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сетили выставку-форум "Россия" в Москве

5 июня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отправилась в Москв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выставку-форум "Россия". Ребята посетили павильоны выставки и наслаждаются путешествие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Школьники прокатились на двухэтажном автобусе по известным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Москвы и посетили "Москвариум".

— Замеча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ети в восторге. Мы посетили Большой театр, проезжа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рогулялись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и посетили знаменитую библиотеку имени Ленина. Но самые яркие эмоции у ребят вызвал "Москвариум". Эту экскурсию для ребят организ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й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едагог и сопровождающая делегацию Юлия Стеблянская.

사할린주에 아마추어 낚시인들을 위한 디지털 지도 생겨

사할린주 수산업부는 낚시인 애호가들을 위해 특별한 기회를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면서 디지털 혁신 산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2-GIS 사할린' 업체와 협력하여 낚시 명소를 표시한 지도를 도입해 제작했다.

디지털 지도상에는 낚시터, 낚시터의 이용자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밀렵꾼 문제에 따른 긴급호출서비스를 위한 연락처도 있다. 2-GIS앱상에서 직접적으로 댓글을 달고, 자신의 낚시 사진을 올리며, 휴식의 감동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도 있다.

'2-GIS 사할린' 총책임자인 예브게니 라브렌티예프는 "이제 사할린의 모든 주민들은 낚시터로 가는 경로를 찾기 위해 디지털 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할린주에서 처음으로 수산업 기관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이 실현되었으며, 현재 이와 유사한 사례는 러시아 어느 지역에도 없다."고 말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 지역에 낚시 애호가들을 위한 편안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할린주는 하루에 3종 이하 낚시라는 표준치

에서 러시아 연방 국민들이 무료로 송어를 잡을 수 있는 러시아 내 유일한 지역이다. 이를 위해 55개의 낚시터가 준비되었다."고 사할린주 수산업부 이완 라드첸코 장관이 언급했다.

낚시 허가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난해 주내 지역에서는 시마(송어 종류)를 낚기 위해 한 구역만이 허락되었지만 2024년에는 이런 구역이 8 곳으로 늘어나 아나와 지역에서는 3곳,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노글리키, 우글레고르스크, 토마리 지역들에서는 각각 1곳에서만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낚시 애호가들을 위한 구역에서는 3톤 이상의 '시마' 조업이 이뤄졌다.

현재 낚시 허가권에 따라 태평양 연어(시마(송어류), 송어, 연어, 키주츠) 낚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낚시터는 총 15곳이 마련되어 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явились цифровые карты для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 цифров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отрасли, предоставляя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региона уник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любителей рыбалки.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мпанией «2ГИС Сахалин» разработали и внедрили карту с точками мест лова.

На карте представлена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рыболовном участке, его пользователе, а также указаны контактные номера для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по вопросам браконьерства. Также открыта возможность делиться комментариями, фото своих уловов 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отдых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2ГИС.

«Теперь каждый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картой для построения маршрута к месту вылова рыбы. Этот новаторский подход к организации рыболовства впервые реализова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в России на сегодня», — подчеркну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2ГИС Сахалин» Евгений Лаврентье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веде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любител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регионом в России, где возможен бесплатный вылов горбуши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ределах нормы — не более трех экземпляров в день. Для этого определено 55 мест»,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Не остае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и лицензионный л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был только один участок для добычи сими по путевкам. В 2024-ом таких участков уже восемь: три —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по одному — в Поронай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ах.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이틀간 산나물축제로 기쁨을 안겨줘

사할린에는 5월과 6월이면 한인들이 좋아하는 동의나물, 머위, 고사리, 고비, 명이나물, 산미나리를 비롯해 여러 산나물이 있어 나물 캐기에 분주하다. 이제 이 산나물들은 현지 주민들과 사할린을 찾아온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지난 주말 이틀간 야생 산나물과 관련한 축제들이 펼쳐진 가운데 행사가 진행된 날 날씨도 좋았고, 축제는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로푸흐-페스트', 주요 행사로 머위볶음 만들기

지난 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 문화센터 앞마당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로푸흐-페스트(머위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문화관광센터와 사할린주 한인협회, 로지나 문화회관의 주최·주관 아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됐다.

축제의 주요 행사로 '머위'요리 만들기 체험교실이 열렸다. 이에 시 문화관광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신청을 한 200명이 참가할 수 있었다. 참가자는 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과 사할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었다.

문화관광센터 안드레이 수호노스 소장은 "축제 행사 주최자들은 야생 산나물 채취를 포함해 가족적 휴양에 초점을 맞추고, 대규모 요리 체험교실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10리터의 포대로 머위를 채취해 10포대의 머위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장에 따르면 주한인협회는 올해 봄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관광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정 보물의 섬> 기획으로 3가지 산나물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동의나물(칼루즈니차)과 고사리에 따른 행사를 이미 진행했고, 이번에는 머위를 주제로 행사를 하였다고 박 회장이 말했다.

사할린 주민들은 한인들과 같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이곳 한인들의 음식에 익숙해져 좋아하는데, 사할린 방문객들은 전혀 낯선 요리 앞에 많이 신기해 했다.

사할린 머위 요리는 아마도 한국사람들에게도 낯선 음식이다. 이날 한 스베틀라나



요리교실 진행자는 머위 채취 과정과 언제, 어떻게 캐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었다. 사할린 머위는 워낙 키가 크고, 주로 그 줄기를 이용해 요리한다. 머위는 특이한 향이 있어 맛있다고들 한다. 머위 줄기를 채취한 후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살짝 삶거나 해서 껍질을 벗긴 후 요리를 한다. 식초를 넣고 양념을 넣어 나물무침으로 만들거나 양파와 마늘을 넣어 살짝 볶아서 요리를 한다.

참가자들은 진행자에 따라 모두 미리 데쳐 놓은 머위를 볶아보며, 새로운 요리를 배우려는 밝은 분위기 속에 많이 즐거워했다. 요리교실 참가자들과 이들을 지켜보던 약 100명의 관중 모두가 주최 측에서 준비해놓은 반찬(머위볶음, 고사리나물, 김치볶음 등)과 밥으로 즐겁게 사할린식 한민족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요리교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머위 요리를 집에 가져갈 수 있었다.

이날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면서 '하늘'사물놀이 그룹의 공연과 '토르나도'스포츠 클럽의 태권도 시범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시공원, '사할린 나물'축제 펼쳐

지난 9일(일) 오전 12시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시공원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주최하고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의 협찬으로 제1회 <사할린 나물>축제가 열렸다. 시공원에서 열린 산나물축제에서는 나물 판매, 산나물 시식, 한민족 문화 소개, 타타르 민족을 비롯해 다른 민족의 음식 판매, 위장그물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비누품선놀이, 오락 등으로 흥겨운 분위기 속에 축제마당이 펼쳐졌다.

축제를 방문한 사람들은 특히 시한인회에서 마련한 쑥과 쌀가루로 즉석에서 만드는 쑥전을 시식할 수 있었고, 미리 만든 머위볶음도 맛볼 수 있었다.

이날 축제의 기분을 한층 돋우는 것은 공연 프로그램이었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북 공연과 무용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소속 '무궁화'합창단과 '매력'무용단의 무대도 눈길을 끌었다. '희망'무용단의 민속춤도 기쁨을 안겨주었고, 여러 K-팝 댄서들, 보컬리스트들의 공연이 보기가 좋았다. 또한 무대에 러시아 민속 합창단, 동양·인도 등 무용 공연이 잘 어우러졌다. 색스폰 연주도 역시 좋았다.

여러 개의 즐거운 게임들도 펼쳐져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한 예로 눈을 가리고 나물을 먹고 무슨 나물인지 알아내기, 젓가락으로 생달걀을 들고 가져가기 등 흥겹고, 웃음 넘치는 시간들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명절 기쁨을 한껏 안겨주었다.

이날 펼쳐진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



는 특수작전 지역에 있는 사할린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틀간 한인단체들이 개최한 행사를 지켜본 취재 기자들은 '이 행사들을 한 장소에서 하나의 축제로 꾸몄으면 대규모 산나물 축제가 되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할린 한인들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졌을 거란'말에 공감했다.

사할린 한인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한 주제로, 하나의 축제로 좀더 가까워지고, 대규모 하나의 축제를 여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에 대규모 물류-운송 허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시킬 것"

사할린주의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본회의에서 러시아 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 개척은 운송 연계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북극항로는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대동맥과 같다. 지난해 북극항로로 3,60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되었고, 앞으로 화물 운송은 1억5천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극항로의 제반시설개발을 지속해야 하며, 북극항구들에 교통 접근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을 통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2030년쯤에 러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국제 운송 통로에 따른 화물운송량은 2021년에 비해 1.5배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장 먼저 이 북극항로의 경쟁력과 기업과 운송업체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뤄질 것이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시장이 변창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동쪽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할린에 허브 구축에 따른 기획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르사코프 항구의 현대화는 운송-물류 허브의 기반이다. 사할린 동부해안에서는 포로나이스크에 또 하나의 대규모 항구 건설이 시작되고 있으며, '오로라' 통합 극동항공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운송기획은 사할린의 다른 경제산업발전과도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탄화수소 원료 및 해양생물자원의 채취와 가공, 수소 및 그에 따른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는 친환경적 청정연료 생산 산업이다. 운송-물류 허브 구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시키며, 사할린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할린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향후 유망한 산업을 위한 고급의 자격을 갖춘 인재양성의 문제를 언급했다. 사할린주에서 이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사할린테크 캠퍼스 시설이 건설 중이며, 지역 정부는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할린 주지사는 "현재 우리는 사할린의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가동될 대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할린의 대륙붕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할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무인기 시스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수소 생산 및 이용에 따른 기술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주와 극동지역 나아가 러시아의 미래이다."라고 강조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 개최 전일 사할린 주정부와 스베르오행과 사이에 사할린 지역에 <21개 학교들> 건설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새로이 설립될 학교들은 기술정보(IT) 분야에서 고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할 전망이다.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Тема выходных – сахалинские дикоросы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и два фестив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м дикоросам и проведе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рекрасная погода, хороша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 и дружеская атмосфера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созданию праздн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Мастер-класс «Лопух-фес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рамках знакомства с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икорастущих растений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к «Лопух-фест», который продолжил цикл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екта «Остров семейных сокровищ», посвященных Году семь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дом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аздник состоялся 8 июня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Узнать секрет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белокопытника «по-сахалински» собрались более 300 горожан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Участниками мастер-класса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лопуха стали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ервыми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Гостям рассказали о тонкостях сбора лопуха, как заготовить его на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а участ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а прошли полный путь от начала приготовления до гото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угощения на своих столах.

Как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ндрей Сухонос,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должают делать акцент на семейном отдыхе, в том числе при сборе дикоросов.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сового кулинарного мастер-класс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было собрано и подготовлено более 100 литров лопуха.

Как сообщ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аздник «Лопух-фест» стал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третьим по счету) мероприятием цикла «Остров семейных сокровищ». На предстоящих событиях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бесплат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с дегустацией таких дикоросов, как калужница и папоротник.

Участники праздника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я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Ханьль», тхэквондистов спортклуба «Торнад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озыгрыше призов от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выставке икебаны и приобре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сувениры с тематикой дикорастущих растений острова.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намуль»

9 июня,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ени Ю.А.Гагарина прошел 1-ый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намуль».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СК). В этом начинании организацию поддержала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В этот день горожане и гости города могл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прямо на их глазах лепешки из полыни,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о из лопуха, приобрести восточные салаты из сахалинских дикоросов, овощей и зелени. А ещ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письменностью, примерить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устроить в них фотосессию,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забавных играх и конкурсах, лотереи.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летении макрированной сетки для СВО. Работала ярмарка. Ну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часть вырученных средств пошл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разнообраз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порадовала игрой на барабанах и искусством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Корейские танцы представили ансамбли «Мерек» и «Химанг», а хор «Мугунхва» зарядил зрителей исполнением корейских песен. Русские песни, индийские танцы, восточные танцы, звучание саксофона, множество исполнителей К-Поп (вокал и танцы) и т.д. – все это нашло живой отклик у зрителей.

Ничто не может заменить живого общени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х эмоций от увиденного зрелища. 1-ый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намуль» удался.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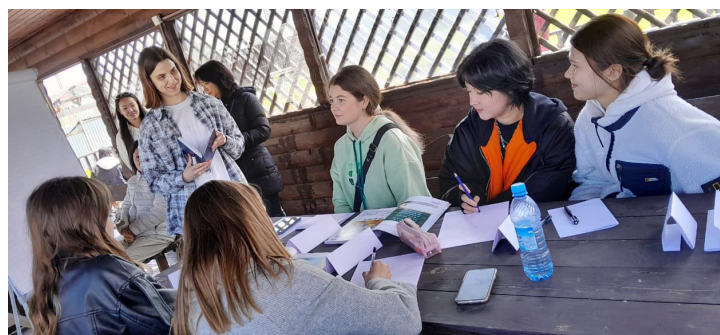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конце июня состоится выпуск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завершилися итоговые испытания по программ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азовый уровень) / 한국어교사 양성 (초급)», и уже



очень скоро дипл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ца, дающий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бразование и наука (в сфере дошкольного, начального общего, основного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лучают десять выпускников этого уник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дея подготовки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кадров для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дилась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Осенью 2023 года,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ая группа слушателей приступила к занятиям.

Реализация настоящей программы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по очной форм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алендарным графиком и расписанием.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разные виды учебных занятий: лекции, семинарски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работа.

Цель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теоретическая и практическа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слушателей к преподаванию базового уровн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ориентацией на воспит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личности учащегося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азного типа; 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на основе базовых знани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етодических умений и навыков, позволяющих им в качестве учителей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и проводить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 учетом достижений современной методической наук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года шел активный процесс погружения в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снов педагогики, психологии и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самых базовых дисципли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тандартом. Слушатели освоили

четыре учебника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теперь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по ним, четко понимая структуру урока, содержание всех текстов, диалогов и упражнений, тонко чувствуя все загадки корей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Самым интересным, неожиданным и очень захватывающим мероприятием стала итоговая аттестация. Перед слушателями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провести несколько урок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незнакомой аудитории. Все было волнительно и для будущих учителей, и для учеников, и для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оценить мастерство выпуск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Учебное занятие должно было отражать заявленную концепцию и быть иллюстрацией умения применить на практике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научных позиц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убеждений и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ми овладел слушатель за год обучения.

Надо было уметь поставить цель, определить задачи и подобрать нужные для их решения средства, что и стало залогом успеха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незабываемого действия. Каждый слушатель представил на суд экспертов три урока по 30 минут.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занятий все участники собрались для подведения итогов, анализа ошибок и обсужд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Важно, что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всех необходимых формальностей в душе каждого остался праздник творческого единения учителя, учеников, коллег и членов жюри. Уже очень скоро мы увидим новые класс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Углегорском и Охинском районах, и, конечно,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грамма н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Летом 2024 года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новый набор. Организаторы уверены, что общими усилиями мы сможем воспитать не одно поколение учителей, и в каждом уголке наш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явится класс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Инна Корнее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сурийск отметил летний праздник Тано

10 июн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уссурий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остоялись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празднику Тано, знаменующему наступление лета.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ёх часов более 200 детей играли в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корейским барабанам, К-поп, весело проводили время. В заключени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аздника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ибимпаб, пянсе, корн-доги и уже ставший для всех родным узбекский плов,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города Уссурийск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отправился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10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тправился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визитами в Туркменистан,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Главная цель поездки – обеспечение стабильных поставок ключевых минер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Три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являются крупны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урана, лития и другого важного сырь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сопровождает делегация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олее чем 6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10 июня в Ашхабаде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зидентом Туркменистана Сердаром Бердымухамедовым. По их итогам были подписаны документы об актив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1 июн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отправился с трёхдневным визитом в Астану, где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зидентом Казахстана Касым-Жомартом Токаевым по вопросам углуб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В программе визита - встречи с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бизнесменами, работающими в Казахстане. 13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отправится в Ташкент. Там запланированы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зидентом Узбекистана Шавкатом Мирзиёевым и двусторонний бизнес-форум. В ходе визита планируется объявить о запуске инициативы под названием K-Silk Road,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здание новой модел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утём соедин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с богатыми ресурс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Это третья по счёту региональная инициати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после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и Инициативы солидарности РК-АСЕАН.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Сеул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саммита РК и всех пят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ключая Кыргызстан и Таджикистан.

Движение 10 июня – поворотный момент в истории РК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которое началось 10 июня 1987 года, является поворотным моментом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с которого началась эпоха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10 июня в мэрии Сеула на церемонии, посвящённой 37-й годовщине движения. Массовые протесты, инициированные студентами, начали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результате жестоких пыток в полиции погиб студент Сеул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ак Чон Чхоль. Они продолжались около 20 дней, приведя к установлению системы прямых выборов и мирной передачи власти. «Благородный дух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10 июня - это ценное наследие, которое мы должны передавать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 отметил Хан Док С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елает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свободную и справедливую нацию, мирную и процветающую страну, основанную на зрелой демократии», - добавил он.

Решение РК о включении шахты Садо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зависит от Японии

Решение о том, дать ли Японии согласие на включение золотых и серебряных рудников Садо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как Токио отнесётся к их истор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7 июн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Япония настаивает на включении рудников Садо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о РК требует, чтобы в их истории было упомянуто, что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они были место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Для включения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требуется более двух третей голосов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Комитета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о традиционно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имается на основе консенсуса. РК и Япония являются в этом году членами Комитета с правом решающего голоса. Голосование о включении Садо в список состоится в июле.

Профсоюз Samsung Electronics провёл однодневную забастовку

Работники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состоящие в отраслевом профсоюзе, провели 7 июня однодневную забастовку. Это первая забастовка в компании, 28 тысяч сотрудников которой являются членами профсоюза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электроники.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присоединившихся к забастовке, взяв однодневный отпуск, не раскрываетс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офсоюзе, нынешняя забастовка - первый шаг на пути к крупномасштабной забастовке. Компания-исследователь рынка электроники TrendForce полагает, что однодневная приостановка производства не приведёт к существенным сбоям в работе компании, поскольку предприятия Samsung Electronics имею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автоматизации.

РК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кукольных театров в Брюсселе

Тр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укольные постановки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на Седьм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кукольных театров в Брюсселе. Как сообщил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Бельгии, 8-9 июня зрители смогли увидеть спектакли «Хон Дон Чжи и И Си Ми», «Чом» и «Кукольная фантазия».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начался 17 мая.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9 кукольных спектаклей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РК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и высказывания Путина в отношении Сеула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 Петербург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нашли большой отклик в экспертных кругах и СМИ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о мнению Сеула,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протянул оливковую ветвь" Корее и подчеркнул готовность Москвы улучш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РК).

Различные изд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уделил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словам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главами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информагентств, в ходе которой он в том числе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ны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Сеула и состоян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Напомним, что Путин "высоко оценил тот факт", что Сеул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 прямых поставок оруж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Киеву несмотря на неоднократны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заходы со стороны США, но добавил, что Сеул косвенно участвует в конфликте на Украине.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при этом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достигнутый за предыдущие десятилетия уровень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охранится хотя бы частично, что позволит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ботать над их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езидент РФ также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отметил, что в политическом руководстве РК не наблюдается русофобского настроения, а Москва готова к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и диалогу с Сеулом.

Ведуще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о "Рёнхап", процитировав слова В. Путина в отношении Сеула полностью, высказало мнение, что Моск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улучш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но при этом вновь обозначила свою "красную линию" по Украине: РК не должна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Киеву напрямую, иначе последует ответ Москв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лов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были восприняты и как заверения в том, что и Москва будет соблюдать "красную линию Сеула",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нежелательности поставок Росси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лючевых во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Кроме того, высказано мнение, что РФ, находясь в конфликте с Западом и странами НАТО, пытае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биться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Востока, включая Южную Корею.

"Путин сделал положительный жест в сторону Южной Кореи, но при этом дал понять, что Россия катего-

рически против поставок нашего оружия на Украину... Россия пытае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тговорить Сеул и не прислушиваться к призывам США, обращенным к союзникам, дел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й Киеву", - цитирует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о "Рёнхап" слова старше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сеу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Асан Чха Ду Хёна.

Англоязычная газета The Korea Times, описывая высказы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озаглавила материал как "Путин протянул Южной Кореи оливковую ветвь в попытке улучшить отноше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Путиным решения РК н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Украине содержит также ожидания, что Сеул продолжит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этой позиции. В частности, слова Путина о том, что Москва "внимательно наблюдает за попытками США получить оружие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одчеркивает желание РФ, чтобы Корея не поддавалась растущему давлению Запада в отношен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Украине вооружений", - цитирует The Korea Times мнение старше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Институ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Бывш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сотрудник МИД РК, известный специалист по России Пак Бён Хван,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озгл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евразийск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едположил в своем комментарии для The Korea Times, что весьма полож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Путиным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возможно стала ответом Москвы на прозвучавшие ранее за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о намерении устраив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ей. Пак также обратился к руководству РК с призывом возобновить прям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 Россие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бменов, печально, что хот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о не вводило [такой] санкции, но откладывается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Даже не говоря о том, что это сэкономит время и деньги людям, путешествующим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меняло бы позицию, это послало бы России небольшой, но значимый сигнал", - сказал эксперт в интервью информагентству ТАСС.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Межкорейские "листовочно-мусорные бомбардировки" провоцируют конфликт в регионе

В воскресенье 9 июня на территорию Южной Кореи упали запущенные КНДР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которы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несли с собой пакеты с мусором и нечистотами. Эту акцию Пхеньян провел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и она стала ответом на предшествовавшую ей заброску южанами на Север листовок с критикой строя Страны чучхе.

Хотя подобный "межкорейский бартерный обмен мусора на макулатуру выглядит в чем-то даже комичным и, пожалуй, лучше, чем обстрелы друг друг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артиллерии и ракет, но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все дело может закончиться и реальной стычкой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ружия и жертвами с обеих сторо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мусорный" ответ на пропаганду перебежчиков

Можно уже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в межкорейском идеологическ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Сеула и Пхеньяна Север изобрел и недавно применил оригинальную новинку, которая сильно разозл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поставило стратегов Юга в тупик. В ответ на заброс с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с листовками и флешками, на которых содержится критика режима КНДР и лично Ким Чен Ына, с конца мая Пхеньян стал отвечать "бомбардировками" тож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только в привязанных к ним пластиковых пакетах и корзинах обычно находятся мусор (окурки, битое стекло, бумага и пр.) и нечистоты.

При этом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отвечающая за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и пропаганду КНДР, не отказала себе в удовольствии "потроллить"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Эти действия были названы "выражением свободной воли и мыслей"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чучхе, которы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к утверждалось,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предшествовавшие забросы южанами в КНДР листовок. Ким Ё Чжон с издевкой использовала фактически те же самые выражения, которые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обычно применяет, когда публично объясняет, почему он "не может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свободному волеизъявлению" своих граждан, запускающих воздушные шары с листовкам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До этого КНДР неоднократно грозила, что отреагирует на листовки, обещая различные меры - вплоть до нанесения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ударов по местам запуска шаро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очнее 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ыч-

но в ответ приводила войска в повышенную боеготовность и гарантировала "свою сокрушительную реакцию на малейшие провокации северян". Судя по всему, в Пхеньяне нашли менее "убийственный", но при этом, возможно, в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м плане еще даже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й ответ: заброс в соседнюю страну мусора и нечистот. Теперь КНДР обещает каждый раз именно так отвечать на листовки. Подобные акции Пхеньян провел 28-29 мая, 1-2 июня и 8-9 июня.

Всего же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 три серии запусков упали более тысячи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с "ответными подарками", и наблюдать их можно было практическ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даже в южных районах,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есьма далеко от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Судя же п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КНДР пыталась направить в разы больше шаров. Так, в ходе первых двух запусков Пхеньян заявил о запуске более трех тысяч шаров, но на Юге нашли лишь около тысячи. Сегодня же в РК насчитали 80 подобных "подарков из Страны чучхе", хотя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запуски 330 шаров. Подобная неэффективность запусков объяснима примитивностью "лета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 их ветром часто сносит совсем в другие районы.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шаров, как утверждают в Сеуле, вообще вернулась на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и упала у самих северян.

Точно так же обстоит дело и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листовками и флешками. Около 80-90 процентов шаров с ними либо падают в море, либо снова возвращают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не добираясь до Севера. В связи с этим эффект от этих акций больше заключается в поднимаящейся в СМИ вокруг подобных запусков шумихи.

Те же самые воздушные шары с мусором, прилетевшие из КНДР, заставили некоторых жителей Сеула удивиться, увидев у себя во дворах приземлившиеся "посылки". Лишь только один шар с, пожалуй, слишком тяжелой корзиной умудрился повредить стекло припаркованной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ула машины. А так, что листовки, что мусор, что нечистоты как Северу, так и Югу разве что очень неприятны, а реальной угрозы не несут. Опасения, что кто-то может направлять ядовитые, химически активные или радиоактивные вещества, так до сих пор и не подтвердилис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филарм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на принцип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филарм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на принцип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Соглашение об этом в ходе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первы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Газпромбанк» Павел Бруссер.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филармон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зрела давно.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многое делают для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было открыто несколько выставочных площадей для художников, заработала новая сцена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появились симфонический и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ы, музыкальный театр. Однак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отрасли мешает отсутствие вместительного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который отвечал бы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В здании филармонии, которо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в результат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Газпромбанк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онцертный зал, оснащенный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передовой акустикой, помещения для вокальных и танцевальных репетиций,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выставочных и дел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 Благодаря новой филармонии мы сможем на более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роводить фестивали искусств, концерты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ши артисты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готовиться к своим выступлениям в самых лучших условиях.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тому что комфортная жизнь — это не только новые дома и чистые улицы, но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тить концерт, послушать музыку в качественном исполнении. Это одна из тех вещей,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люди принимают решение остаться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а не уезжать на нов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Поэтому мы вместе с «Газпромбанком» будем не только строить филармонию, но и решать важн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задачу — побуждать людей жить на наших острова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новое здание филармонии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вс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МЕГАИГРОК в сфе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Газпромбанк»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сотрудничают по ряду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самых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но их неизменно объединяет то, что они реализуются для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жителей.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филармонии станет еще одним драйвер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Газпромбанк» обладает опытом и экспертизой в подобных проектах, которые уже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Павел Бруссер.

Посещаемость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тет. В 2023 году на них побывали 10,2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Между тем, в 2021 году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был гораздо ниже, всего 8,6 милли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к 2030 году посещаемость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остигнет 18,7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тся апарт-отель, которым будет управлять крупнейш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гостиничная сеть «AZIMUT Hotels»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апарт-отель высокого класса, которым будет управлять крупнейш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гостиничная сеть «Azimut Hotels».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глашение на поля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AZIMUT Hotels» Александр Клячин.

Базой для апарт-отеля на 250 номеров, рассчитанного на семейный отдых, станет часть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изон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вых гостей новый объект примет уже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 «AZIMUT Hotels» — это первый гостиничный оператор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который начинает работ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тот факт, что популярно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ак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быстро растет. И крупный бизнес на это реагирует.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пик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сезона нам подчас не хватает номерного фонда,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удовлетворить спрос со стороны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Открытие апарт-отеля «AZIMUT Hotels»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зволит снизить остроту этой проблемы 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индустр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овом гостиничном комплексе будет создано около 40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появл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отеля от крупной сети также задаст новые стандарты обслуживания туристов.

— Сахалин всегда представлял для нас важный вектор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гостиничной сети, и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благодаря работе властей региона и лично Валерия Игоревича Лимаренко, эта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уется. Появление гостиницы «AZIMUT» не тольк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увеличить доходы региона, но и станет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многи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свои поездки. Уверен, что растущий поток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осту популярно-

сти региона, и как делового, и как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 отметил Александр Клячи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звана лучшим регионом России по состоянию регуляторной среды для бизнес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При это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показателю состояния регуляторной среды. Результаты рейтинга были оглашены в ходе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оставляет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ри этом за основу принимаются оценки усилий властей субъекта Федерации по созданию благоприятной среды для бизнеса со стороны местного дел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экспертов. Принимается во внимание наличие институтов и мер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качеств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ресурсов, а также состояние регуляторной среды.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нял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престижное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При этом наш регион назван лучшим в России по состоянию регуляторной среды.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мы быстрее всех в стране выдаё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разрешен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формляем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одключаем к газов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теплоснабжению, водоснабжению, оформляем права собственности для бизнеса, оказываем необходим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услуги.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этом сыграла цифровизация. Мы вместе с нашими деловы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работали над тем,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сниз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барьеры, помочь наш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открывать н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развивать бизнес, создавать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лажена эффективная связь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бизнесом.

— С помощью сервиса «Бизнес.Сахалин.Онлайн»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может поднять любую проблему, возникшую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или в ходе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пании. Ответ дается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дней, а не 30, как это обычно принято, отметил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Коваленко.

Также важную роль играет тес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делов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проводятся встречи руководства региона с бизнесом, зас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на которых обсуждаются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и оперативно принимаются решения.

На двух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в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ах прошла пусконаладка

Блочно-модульные котельные, работающие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топливе, в селах Соловьевка и Раздольн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успешно прошли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ед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се этап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ходя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Мощность котельной в Раздольном — 9,3 мегаватта. Котельная в Соловьевке состоит из четырех соединенных между собой модулей общей мощностью 7,33 мегаватта. Этот объект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на двух видах топлива, но приоритетным является газ, в качестве резервного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 Запуском оборудования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занимались специалисты завода-изготовителя. Это д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гарантию при эксплуатации. Во время пусконаладочных работ проверяется каждый элемент большой и технически сложной конструкции. Перед подачей в котельную газа должны быть настроены газорегуляторные устройства и обязательно выполнена опрессовка системы. Без уверенности в том, что давление в норме и утечек нет, пуск не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Анатолий Алтухов.

— Видели, как из трубы пошел прозрачный дымок. Значит, новая котельная готова, и уже этой осенью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начнется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топливе,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Соловьевки Валентин Чудайкин.

Всего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строятся семь современных объектов ЖКХ. Близя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работы на котельной в селе Чапаево (мощность — 3,78 мегаватта), а также улице Спортивной в Корсакове (мощность — 20 мегаватт), которая перекроет возможности сразу двух угольных.

— Мы идем уверенным темпом в вопросе возведения котельных, работающих на голубом топливе.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вышли также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котельной № 25 в Корсакове. Здесь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внутриплощадочных сетей и получению допусков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усконаладки. Важн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еревести все объекты ЖКХ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Эта задача,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нами губернатор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помним, актив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тельных также ведется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трех — в селе Сокол, по одной — в Долинске, селах Покровка, Быков, Стародубское и

Советское. Кроме того,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лочно-модульной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4 в Поронайске.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бе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 открытии в регионе «Школы 21»

На площадке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Сбербанка Герман Греф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б открыт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Школы 21». Ново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Школа 21» — это инновационны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ект Сбер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его рамках любой кандидат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лет, успешно прошедший отборочные этапы, может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сфер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Кампусы «Школы 21» уже работают в Москве, Казани, Новосибирске, Сургуте, Якутске, Великом Новгороде, Ярославле, Магасе и Белгороде, в них учится более 5600 человек.

— Уже сегодня в стране и мире существует высокий спрос н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IT-специалистов. И он будет только р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 Сбером юные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стой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перспективной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 найти место в жизни,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и всей страны,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упление в школу не зависит от предыдущих знаний, опыта работы, умения программировать и наличия дипломов.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ит 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й цифров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латформе с гибким и постоянно развивающимся контентом,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на актуаль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рынка.

— Высококласные IT-специалисты — это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рисуют контур нашего будущего. От их труда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развитие России в целом и каждого конкретного региона в отдельности. Как показала практика, методика обучения «равный равному», которая применяется в «Школе 21», очень эффективна. Она позволяет отбирать самых мотивированных 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ребят, помогает получать навыки и знания, и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успешно применять их на благо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глава Сбербанка Герман Греф.

100 процентов выпускников «Школы 21» успешно трудоустроены в крупн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IT-компаниях и стартапах.

Почти 190 дв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2024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обсудили ход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дворов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Всего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капремонты проведут в 187 дворах, в 2025 году — еще в 207.

Как доложи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к работам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 Программ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дворов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специально, чтобы за короткий срок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наиболее запущенных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до которых на местном уровне десятилетиями не доходили руки. В этом году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воров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до конц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чтобы в последующем работы выполнялись в текущем режиме,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 в текущем году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21 дво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18. Еще по 15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в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и Поронай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В ход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работ специалисты заменят на участках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тротуары и бордюры. Также проведут озеленение и установят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пределено количество дворов, нуждающихся в капитальном ремонте в 2024-2025 годах. В этом году 187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буду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По всем дворам заключены контракты, и подрядчики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ам. В 2025 году обновим еще 207 дворов. До 10 июля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должны заключить контракты н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дворов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а до 1 октября направить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документацию о стоимости предстоящих работ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бюджета, — доложил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Отмети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работ запланирован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где реновации ожидают 27 дворов, а также в Углегорске и Долинске. Здесь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дут 24 и 23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роме того, в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текущие ремонты дворов,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полнить на 634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Работы выполняю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в 2021 году. Подрядчики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во дворах, не дожидаясь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민족 공감

국내외 고려인 소통 기반
만든다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출범초대 이사장에
채예진 미디어사람협동조합 이사장

국내외 고려인들 간 소통 기반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려인 동포들의 단체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가 출범했다.

KGN은 4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발족식을 갖고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밝혔다.

KGN은 국내외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와 연계 및 연대함으로써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 교류 등을 주관 및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약 50여명이 KGN에 참여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되는 한글 신문 고려일보의 한국특파원인 채예진(52) 미디어사람협동조합 이사장이 KGN 이사장을 맡았다.

고려인 적응 돕기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

고려인 동포 4세인 채 이사장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 제천시 동포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KGN은 앞으로 한국 문화를 보급하고 고려인의 적응을 돕기 위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육, 전통 공예 체험, 한국 음식 및 음악 강의 등이 포함된다.

또 고려인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학업 지원, 학습 자료 제공, 학업 상담 등을 통해 고려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고려인 인권 보호 및 홍보 활동도 진

행 KGN은 고려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인권 보호 및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인권 교육, 인권 위반 사례 조사 및 보고,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외 고려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문화 교류, 역사 탐방, 국제 협력 프로젝트, 국제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KGN 관계자는 "고국으로 귀환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착지원 활동을 하고,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의 창, 5월호)

"재외동포 청년을 고국으로 초청합니다"

'2024 KDIA 한국여행 초청 연수' 8월5~13일 8박9일간 개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경상북도·경북문화재단 공동 행사

1995~2005년 출생, 경북 연고 청년 40명 초청, 참가비 전액 지원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이사장 고도원·KDIA)와 경상북도·경북문화재단은 '2024 KDIA 한국여행 초청 연수'를 오는 8월 5일부터 13일까지 8박 9일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KDIA 행사는 미래세대 한인 청년을 초청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1995~2005년 출생한 동포들 중 경상북도에 연고가 있는 청년 40명을 초청하며, 국내 청년과의 교류를 위해 영어에 능통한 국내 대학생도 함께 한다.

일정은 충북 충주시에 소재 아침편지문화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안동·포항·의성·대구·경주 등 경북 지역 주요 도시를 탐방하며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한글을 배우게 된다. 또한, 포스코 등 산업현장과 대학을 방문해 기업가·교수 등 저명인사들과 교류의 시간도 갖는다.

이번 행사의 참가자들은 전원 한국어 또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참가비는 전액 지원된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관계자는 "전 세계를 누비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인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오는 14일로 자세한 사항은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f.kr)를 참고하면 된다.

(재외동포신문)

우리 안의 이주

올해 인천시에 사는 이주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사할린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한 고령의 동포 여섯 분을 인터뷰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연구 주제를 한참 벗어나곤 한다.

먹고살기 위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을 향해 걷고 또 걸어야 했던 할머니.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대륙횡단 화물열차에서 견뎌야 했던 추위와 공포. 중앙아시아 땅에 버려지듯 옮겨진 아버지가 맨손으로 땅을 파고 심었던 벼씨.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속절 없이 죽어 나갔던 형제 자매들. 이방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 돌아온 할아버지의 고향 한국에서 다시 겪는 이방인으로서의 아픔. 한국어를 할 수 없어 병어리가 된 것 같은 답답함.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저쪽 고향'에 사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조선에서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연해주와 유라시아 대륙을 돌아 함박마에 다다른 길고 멀고 험난했던 이주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연구의 주제보다 더 절실한 이야기들을 차마 끊어낼 수 없다.

낮선 땅에서 온몸이 부서질 듯한 노동을 견디며 피땀 묻은 돈을 가족에게 보내곤 하던 우리의 디아스포라가 '고려인'과 '사할린동포'만은 아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며 노예처럼 살았던 하와이 이민자, 그들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송출된' 이른바 '사진신부', 칼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지녔다는 애니깽 농장에서 일하던 멕시코 한인, 척박하기만 한 만주의 황무지를 개간했다는 중국 동포,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죽임을 당한 식민지 조선의 국민,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의 줄타기와 같았던 파독 광부,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고 자기 몸집의 두 배는 되는 서양인을 돌보던 파독 간호사....

'이주'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 안에 가

득하다. 두어 다리만 건너면 이주해 간 피붙이가 있고 두어 집만 지나치면 이주해 온 이웃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주해 온 이들을 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한다. 이런 마음을 바꿔볼 요량이라면 지난 20일 기념한 세계인의 날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자. 올해로 12회를 맞은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 알아보자. 이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민사박물관을 둘러보자.

그렇게 한다면 4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갇혔을 따는 캄보디아 젊은이를, 냉동생선을 손질하느라 온몸이 땀을 흘리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이삿짐을 날라주는 몽골 청년을, 아이에게 타갈로어 한마디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필리핀 엄마를, 하루 열두 시간을 단식하며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중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나...

한지수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 부연구위원
(경기일보)

[우리말로 깨닫다]

글짓기를 가르치지 말라

저는 요즘 소학(小學)을 공부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번역소학(翻譯小學)을 공부합니다. 소학을 번역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소학을 우리말로 바꾼 것에는 소학언해(小學諺解)도 있는데, 언해보다는 번역이 훨씬 우리말답습니다. 언해는 직역이 많고, 번역은 의역이 많다고나 할까요? 물론 번역이나 언해나 기본적으로는 한문을 공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저도 소학의 한문과 옛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번역소학은 종종 때인 1518년에 간행된 책입니다. 소학언해보다 먼저 간행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오래지 않아서 초기의 표기가 남아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읽어보시면 현재의 방언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표기법만 익숙해지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는 나타날 겁니다. 그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도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저희 큰어머니들이 하시던 경상도 사투리보다도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명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발표하는 것은 제 몫입니다. 발표를 하면 더 공부가 됩니다.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 사람과 다양한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대학 1학년 때부터 박사 선생님들과 모임을 하기도 했고, 동기들과 현대문학 모임, 고전문학 공부하는 사람과 한철학 연구 모임도 했습니다. 물론 주로는 언어학 공부 모임이었습니

다. 지금도 일주일에 4번 정도 공부 모임을 하고 있네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일주일에 공부 모임만 네 번 있었습니

다. 설익은 제 머리에 다양한 자극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어학도, 문학도, 철학도 모두 좋았습니다. 공부 후에 이어지는 술자리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술 마시려고 모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술자리에서 이것저것 메모한 것도 많았습니다. 술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지었던 시답지 않았던 시도 여러 편 있었네요.

소학에는 가언(嘉言)이라는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가언'에 대한 번역소학의 번역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이면서 본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글짓기를 가르치지 말라는 부분이 나와서 흥미로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글쓰기가 중요하지요. 따라서 글쓰기를 가르치지 말라는 말은 충분히 자극적입니다. 왜 글짓기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글짓기를 가르치지 말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대강의 해석을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제(子弟)의 경박하고 날뛰는 것을 걱정하는 이는 글 읽기를 침착히 하게 하고, 글짓기는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쓰기에 맛을 들이면 뜻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뜻의 지향을 몰라서는 반드시 배움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짓기의 전제는 가벼운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글 읽기를 열심히 한 후에 쓰기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소학의 내용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많이 쓰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학에서는 좋은 글을 우선 많이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외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을 많이 외우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에 체득(體得)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옛사람이 한문을 공부하는 방법,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그러했습니다. 좋은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러고 낫더니 자연히 작문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이런 교육 방법을 무식한 것이나 고루한 것으로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옛 성인의 가르침에서, 소학의 가르침에서 오늘날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좋은 시를 외우고, 좋은 글귀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글쓰기의 수준이 좋아질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В этом году на участках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добыто более 3 тонн симы. Всего же для рыбалки по путевкам сформировано 15 рыболовных участков,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го л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сима, горбуша, кета и кижуч).

долинск에서 코믹 축구 경기 열려

долинск 지역 '똑똑한 스포츠 행사장'에서 학교 캠프의 학생들과 중앙문화회관의 창작팀이 코믹 축구 경기를 진행했다고 시 중앙문화회관이 전했다. 코믹 축구는 많은 감성을 선사하는 특별한 게임이다. 학생들은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치르고, 마무리로 참가 수료증을 받았다. '코믹 축구는 참가한 학생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웃고, 기뻐하면서, 이들에게 재미있는 순간과 코믹한 상황들을 많이 선사했다.'고 전해졌다.

В Долинске прошли состязания по комическому футболу

В Долинске на «Умной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е» дети из пришкольных лагерей и творческая команда ЦДК поиграли в комический футбол.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Централь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города.

Комический футбол - это необычная игра, которая дарит множество эмоций. Ребята разбили на команды, а по завершению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заслуженными грамотами.

«Футбол принес множество ярких моментов и смешных ситуаций, заставив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смеяться и радоваться вмест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사할린 주민 200여 명, 로소시(연송어)만 해안가 쓰레기 청소

'러시아의 물' 전국 행사의 일환으로 6월 8일 아니와 지역 단체 직원들과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해안가 청소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유리, 금속, 고무, 생활 및 유해 폐기물별로 분류해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이 활동의 참가자들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쓰레기의 대부분은 해안가 방문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이다. 자연 구석구석 면밀히 청소를 진행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서로 일을 나눠서 처리했다.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체는 2그룹으로 나누어 해변 중심에서부터 페스찬스코예 마을까지 그리고 리바초코예 마을 인근 쪽으로 가서 수거했다.»고 아니와 시행정부가 전했다.

다음 '러시아의 물' 해안가 구역 쓰레기 수거 활동은 2024년 9월 아니와 지역에서 실시된다. 지역 주최자들은 아니와 해안가 부근 강변 구역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Двест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очистили от мусора берег бухты Лососей

8 Июня, на уборку пляж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ышли сотрудники организаций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а такж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Мусор сортировали на стекло, металл, пластик, резину, бытовые и опасные отходы.

Как рассказали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к сожалению, большая часть отходов — это мусор, оставленный посетителями пляжа. Чтобы навести тщательную уборку в уголке природы, собравшиеся разделили силы. «Коллективы, убравшиеся на море, разделились на 2 группы от центрального пляжа до села Песчанское и в сторону села Рыбачье», -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акция по сбору мусор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близ водоемов «Вода России» пройдет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в сентябре 2024 год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ланируют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речным берегам в черте Анивы», — добавили местные организаторы.

러시아 청년청의 <오스트로바>포럼 참가 등록, 기록 경신

<로스몰로조츠(러시아 청년청). 행사>의 일환으로 전 러시아 청년 포럼 <오스트로바> 참가 등록이 종료된 가운데 등록 경쟁률은 18대1로 역대 기록을 새로이 경신했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2차 선발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는 <사회적 진출. 교육>, <사회적 진출. 생산성>, <사회

적 진출. 최고의 자리> 세 단계를 통해 참가자들이 선정된다.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2차 선발 단계의 결과를 제시하며, 시험 통과 후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선정된 우수자가 <오스트로바> 전 러시아 청년 포럼에 참가할 수 있다."고 포럼 참가자 관리부가 전했다.

올해는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교육 및 오락 프로그램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원에서 청년축제가 열리고, 대규모 교육행사, 영화제가 열리는데 이는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작은 일부 행사로 진행된다.

Форум «ОстроВа» от Росмолодёжи побил рекорд по регистрациям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Ва» линейки «Росмолодёжь. События» завершена. Конкурс составляет 18 человек на место, что является новым рекордом форумного сезона.

Участ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дали заявку, ждёт второй этап отбора. Дирекции предстоит отобрать участников по т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арьера. Образование», «Карьера. Производство», «Карьера. Первые». Будущим форумчанам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тесты. Их подготовили эксперты и кураторы направлений.

«Конкурс серьезный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ост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едостаточн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явить себя, показать результат во время второго этапа отбора.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Лучшие придут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Ва", — отмечают в службе з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В этом году на форум придет более 100 экспертов.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также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ы.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ёжи в парке, больш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шатёр, фестиваль кино — это только малая часть активностей,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5 по 11 август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본회 회원이자 한국노래를 훌륭하게 한 박위석 씨가 2024년 6월 8일 향년 73세를 일기로 중환으로 별세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울러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С прискорбием сообщаем, что 8 июня 2024 г. ушла из жизни член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красная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а корейских песен Пак Ул Сон (Софья Владимировна).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упругу Григорию Ивановичу (Кан Сан Ук),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усопшей. Память о ней останется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Правление ЮСМООК**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Реклам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а!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